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제대로 작동하나

자료제공 :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정 리 : 최정관 객원기자

지역복지계에서 대상자별 서비스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로 각 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자원 및 인력의 상호 협력과 중복성의 조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구성한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가 바로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의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6월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모임을 통해 상호 지역단체들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지역간의 네트워크는 민간 자율 구성 원칙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지만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지역별 민간자원의 한계성 및 각 지역별 서비스 특징 등의 문제점이 돌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부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의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서비스 네트워크 형성에 관심을 가진 참여 단체와 각 기관 대표들은 세미나 등을 통해 보완된 의견을 종합하여 2005년 8월 23일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2006년 6월 7일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창립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공급자 중심이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는 국민의 복지, 고용, 실업, 보건, 문화, 교육, 평생학습, 여성, 청소년, 보육, 생활체육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를 통하여 공급자 중심이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가능하도록 한다. 또 주민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민간의 협치를



▲ 기존 정책의 전환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는 민간부문의 지역, 부문별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네트워크와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더불어 중앙부처 및 시·군·구의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 누구나 실질적인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국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국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다. 먼저, 전국 네트워크 구축사업 방안으로는 각종 회의와 세미나, 교육사업을 통해서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기관의 적극적 참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 사업으로 전국·지역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합된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해 틀을 만들고 조직을 관리하며 지역 네트워크 조직 구성을 지

원하기도 하고, 민간부문 전산 네트워크를 통해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여 각 단체, 기관, 국민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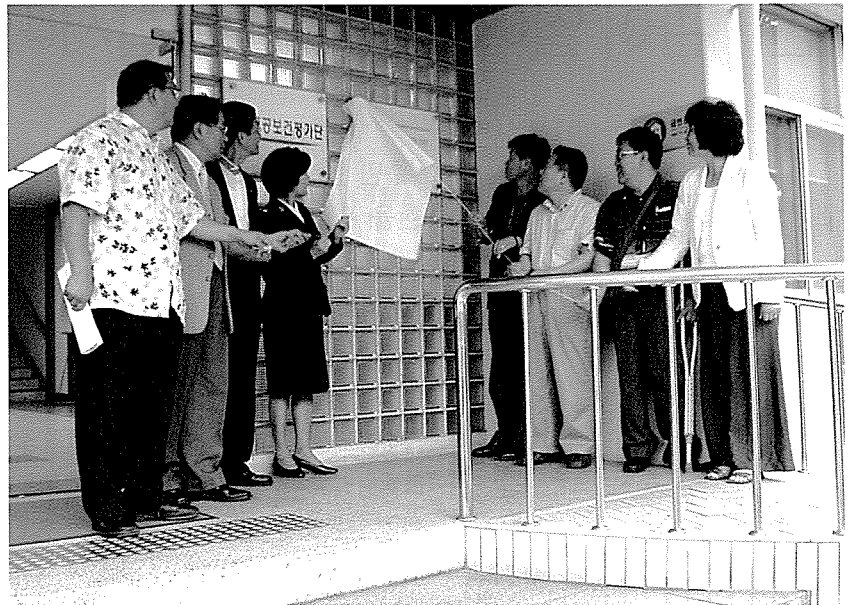
그 외에도 각종 홍보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 연구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모델 개발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활동면에서는 전국 네트워크 사업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는 철저한 민간주도의 활동이 전제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기존의 서비스 제공 기관과 단체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동아리, 개인 등 지역 내 각종 서비스 자원들을 발굴하고 결합하는 열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별(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한 후에, 연합체적인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대상자들의 특성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전국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회의와 교육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강화하고, 각종 홍보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 유도과 지역내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있다. 지역주민협의회는 민간의 서비스, 자원제공 기관들이 대상자별 서비스 분과에 참여하여 상호 간의 정보교환, 서비스, 자원 배분방식, 공동사업개발, 대상자별 사례 관리를 행할 수 있게 하고, 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내에 마련된 사무소의 현판식

는 민간의 자발적 조직이므로 철저히 민간의 역량과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전국, 지역네트워크 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진행되어 온다면 향후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

“현대화된 사회와 변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 생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현재의 서비스 전달 체계로는 부응할 수 없다. 주민들은 당연히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의제다”

기존 정책의 전환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창립된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의 개인 및 단체들에게 적극적인 제휴와 제안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공공과 민간이 당당하고 호혜로운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